

시행사 대표, 일가족 살해 파문...임대계약 피해자들 어찌나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사기분양 혐의 수사 중 용인서 일가족 5명 살해 사업 지연에 계약자들 환불 요구 고소...경찰, 작년부터 70여건 수사 중 최근 반환소송 계약자 승소 속 "살인 사건 여파로 환불 못 받을까" 우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광주시 동구에서 붙잡힌 50대 A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사기분양한 혐의(광주일보 4월 9일 6면)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분양 사기 피해를 입어 수천만원을 잃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70여명의 고소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제 때 환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무등산

고운라피네 업무추진용역사 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에 게 약을 먹인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가족을 죽인 뒤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또 다른 거처인 광주시 동구의 한 빌라로 이동, 약을 먹고 누워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광주동부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용역사와 산수퍼스트 유스테이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에 대한 고소·고발 70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소장에는 창립준비위와 용역사가 조합원 모집 2년이 남도록 관할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조합 설립이 안 돼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물론 1000만~3000만원의 계약금 환불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당초 창립준비위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 임대

아파트 '무등산 씨앗 포레' (343세대)를 지어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키로 하고 이듬해 조합 설립을 목표로 계약자를 모집했고 용역사는 조합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아파트 명칭을 '무등산 고운라피네'로 바꿨다.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창립준비위와 함께 환불 업무를 총괄할 용역사 대표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환불 절차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약자 B씨는 "환불을 받으려고 용역사를 찾아가 변호사와 함께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증서를 써달라 문의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다.

광주동부경찰 수사와 관계자는 "용역사 대표가 타지역으로 압송됐지만 출장 조사를 진행하면 되기에, 불구속 상태일때라도 수사 자체는 수월할 것

로 보인다"며 "지역에 잔존하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충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최근 해당 아파트 계약자가 창립준비위를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지난 11일 무등산 고운라피네 '납입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창립준비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자에게 부당이익 출자금 3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7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검찰에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건설사 대표이사 등 2명 사기 혐의 피소

동업자 "110억원 못 받았다" 고소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 지역 A건설사의 B 대표이사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건설사와 동업한 주택사업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B 대표이사 등이 지난 1월 광주시 남구 방림동에서 완공된 주택개발사업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한 주택사업자에게 110억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산 과정에서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사업비 정산 등과 관련 동업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 주장이다.

이와 관련 A건설사 직원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히 해명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애인의 날' 앞두고 인식 개선 체험행사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6일 광주시 동구청 로비에서 동구청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장애 인식 개선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직된 광주·전남 공직 사회 갑질·괴롭힘 '안타까운 현실'

"상사·구의원·민원 등 힘들어" 북구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 갑질 의혹 경찰관 강등 처분도

광주·전남 공무원들 사이에서 갑질,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 북구청 소속 30대 공무원(8급) A씨가 직장 내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공영주차장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조직 문화가 경직돼있고 업무가 힘들다', '상사와 구의원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악성 민원인들도 힘들게 한다'고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질병 휴직

도 신청했다가 최근 복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관계자는 "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에서는 현지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의혹을 받아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전남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A경정은 경감으로 강등됐으며, 지역 일선 지구대로 인사 이동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A경정의 갑질 비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뉴진스 독자적 활동 금지 유지...법원, 이의신청 수용 안해

즉시항고로 2심서 재공방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 다툼은 '2라운드'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